

광주시장·전남지사에게 듣는다

박광태 시장

박준영 지사

노대동 실버타운 99만㎡ 확장
일자리 13만4천개 만들겠다

“복지 산업으로 돈 버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박광태 광주시장의 새해 화두(話頭)는 ‘사회복지’다. 기존의 ‘경제 살리기’와 ‘문화수도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노인타운 등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산업을 유치해 광주시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실버 의료용품 등의 생산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구상이다. 그냥 ‘퍼주는’ 사회복지가 아닌, ‘생산하며’ 경제를 살리는 사회복지 투자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는데 따른 광주 시장의 변화는 없는가.
 ▲국정 운영의 변화에 맞춰가면서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 2013년까지 5조 3천억원을 투자하는 문화수도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경제 살리기와 문화 수도 조성 외에 역점을 두려고 하는 부문은 사회복지다.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서 관련 산업을 유치해 해외 수출까지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현재 남구 노대동에 조성 중인 10만평 규모의 ‘빛고를 실버타운’을 30만평 규모로 늘리겠다. 기존의 10만평에는 노인전문병원·치매병원·의료기기 체험관·재활병원 등을 집중 배치하고, 표현역세권 쪽으로 20만평을 추가 개발해 의료기기 산업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미 일본 업체와 기술 제휴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2~3천억원을 투자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 최고의 의료기기 생산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미 유치한 ‘의료기기 체험관’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지난해에는 10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등 경제살리기의 성과가 있었다. 경제살리기와 관련 올해 구상은 무엇인가?
 ▲자동차·가전·광산업 등 3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13만4천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 지난해 2만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만들지 못해 아쉬웠다. 자동차는 기자자동차의 AM라인 확충을 계기로 생산능력을 연간 80만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올해 완공되는 디지털 컨버전스부품센터를 중심으로 가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도 나선다. 광산업 분야에선 반도체 조명 시범도시 지정, 2009년 광엑스포 준비, 한국광기술원의 정부출연기관 전환도 추진한다.

-올해는 광주비엔날레가 열린다. 하지만 준비과정에서 전시감독 중 1명이 탈락하는 등 우려폭질이 많아 시민들의 걱정이 크다.
 ▲이제 비엔날레도 14년이 됐다. 연초에 광주비엔날레 개혁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열어 제2의 비엔날레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



車·가전·광산업 경쟁력 제고

시민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비엔날레가 변화할 수 있도록 밀어달라.

-올해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이다. 관광객 유치 전략은?
 ▲수도권 주민과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방문의 해’선포식을 갖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시작한다. 상설 국악공연, 남도전통음식, 김치만들기 등 특별한 체험상품을 내세워 광주·전남을 찾게 만들겠다. 다만 항공사의 무안국제공항 취항을 계기로 대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미국 일본 등 해외동포의 모국방문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여수엑스포 SOC 2조원 투자
J프로젝트등 현안사업 본격화



-2012 여수엑스포 개최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
 ▲박람회 개최까지는 불과 4년여 밖에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박람회장 기반조성, 전시계획 등을 총괄할 조직위원회 설립근거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 특별법’이 제17대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

또 각종 사회간접자본을 적기에 완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4년간 연평균 1조 9천300억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국고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급숙박시설 조성사업, 박람회장 조성 및 사후활용 문제 등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

-한·미 FTA의 협난한 파고를 이겨낼 대안과 농업·농촌을 위한 대책은.
 ▲농업개발시대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환경농업 실천기반은 어느 정도 다져졌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친환경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 아울러 농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복마을’을 조성해 농업인이 자신감을 갖고 살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조선산업 특화 행정 전폭 지원

-조선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은.
 ▲기존의 현대중공업공공예대대형조선소로 추진되는 대한조선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고려조선, 신안중공업 등도 예정대로 조선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여기에는 신소제산업, 세라믹산업을 비롯해 생물산업,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를 조성, 고부가가치 월빙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로봇산업, 우주항공산업 등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남권 종합개발과 F1대회 추진을 위한 준비 계획은.
 ▲서남권 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새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하게 대비하겠다. 2010년 첫 F1대회 개최를 위한 경주장 건설과 준비작업도 적극 추진하겠다.

-올해 본격화될 J프로젝트사업 지원 방안은.
 ▲개발사업시행 추진 주체인 전담법인들이 늦어도 2009년 초에는 공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해 필요한 행정지원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난해에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해 우리 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 자신과 후대의 도민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리고 역사를 위해 자신감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자.

/김주정기자 jinews@kwangju.co.kr

전남 중남부권 활성화 ‘탄력’

“2008년은 전남이 도약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박준영 전남 지사는 올해부터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를 시작하고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 등 현안도 본 궤도에 올라 지역이 크게 활기를 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남이 맞는 2008년의 의미는.
 ▲2008년은 ‘전남 도약의 원년’이다. 우선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새해부터 본격화된다. 또 올해부터는 J프로젝트가 구체화되고 무안기업도시, 해양관광개발, 전남 중남부권 활성화 계획 등도 제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